

삶의 지혜 가르쳐주는 '야만'의 목소리

생명의 소중함 일깨우는 산문집이 주류 이뤄...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담겨

인디언에 관한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인디언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에서 인디언의 역사와 정체성 문제를 다룬 책들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인디언의 역사를 객관적 시각에서 조명한 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생태문제와 환경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인디언 관련서적 출간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인으로 상징되는 서구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하지만 기계 문명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신은 급속도로 황폐해졌다. 마음 속에는 탐욕과 이기심이 들끓었고 자연은 무자비하게 파괴됐다. 언제부터인가 인디언의 야성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위안받았다. '삶의 극지'로 쫓겨난 '야만'의 인디언들에게서 '침단'의 현대인들이 오히려 지혜를 배우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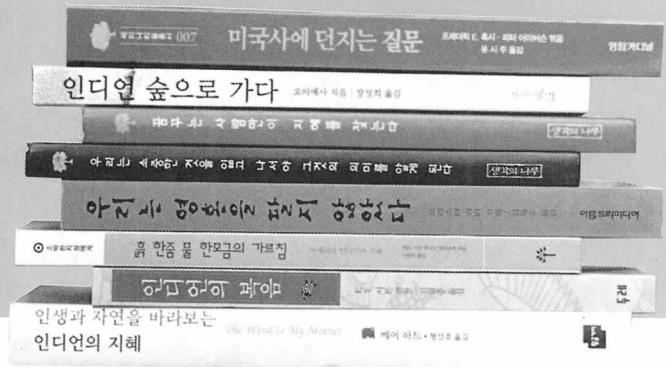
인디언의 지혜를 담은 산문집

최근 몇 달 동안 서점가에 인디언 관련 서적들이 속속 번역·출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책이 인간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가장 좋은 약이라면, 인디언의 지혜는 그 약을 만드는 데 없이 좋은 재료

기 때문이다.

인디언 관련 서적 가운데 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야는 단연 산문집이다. 이들 책은 서점가에 출시된 인디언 관련 서적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가장 최근에 나온 주목할 만한 책으로는 박물학자이자 《동물기》의 지은이인 어니스트 톰슨 시튼이 쓴 《인디언의 복음》(김원중)이다. 백인들이 미개인이라고 여기는 인디언이 오히려 서구 문명인들보다 더 나은 종족이고, 그들의 '원시적'인 문명이 훨씬 더 원숙한 문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튼의 또 다른 책 《작은 인디언의 숲》(햇살과나무꾼, 이상 두레)은 두 소년이 숲 속에 인디언의 티피(천막)를 짓고, 그곳에서 야영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그렸다. 바람의 방향을 알아내고 나무



“인디언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 조명이 필요하다”

《미국사에 던지는 질문》번역한 유시주씨



《미국사에 던지는 질문》(영림카디널)을 번역한 유시주씨(39)는 인디언을 세계사의 마이너리티이자 서구문명의 아웃사이더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에서도 인디언사는 197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먼저,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과 관련해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인디언사 연구의 발단을 찾을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미국의

‘피묻은 손’에 대한 실체를 벗기고 반성하기 위해 일부 양심 있는 학자들이 진보적 운동의 한 지류로서 인디언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두번째는 얼터너티브 컬처로서의 인디언사 연구다. 히피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인디언 문화에 깊숙이 동화되면서 영

성과 자연주의 세계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인디언을 신비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연구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그는 생태론적인 측면에서도 인디언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말한다. 최근에 출간된 책들도 이런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인디언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서구철학의 전통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하지만 서구의 사상은 날이 갈수록 그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디언을 바라보는 낭만주의적인 시각이 오히려 인디언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인디언에 대한 객관적 조명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디언 출신 역사학자들에 의해 백인과의 관계사, 인디언 저항운동, 부족사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 이들 연구가 국내에 소개돼야 한다.”

그는 인디언사 연구가 제3세계 관계사 연구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한다.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화와 베트남전 개입 등을 논할 때 미국과 인디언의 관계사가 좋은 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와 식물들의 특성을 배워가는 일화를 통해 숲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깨닫게 된다.

이밖에 아메리카 인디언이 명상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수행 과정을 보여주는 인디언 사상 입문서이자 산문집인 《인생과 자연을 바라보는 인디언의 지혜》(배어 하트, 형선호, 황금가지), 인디언들의 잠언과 격언을 모아 엮은 《흙 한줌 물 한모금의 가르침》(조셉 추장, 이현숙, 씨앗을뿌리는사람), 시튼과 보이스카웃 건설에 힘을 쏟았던 인디언인 지은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한 《인디언 숲으로 가다》(오이 예사, 장성희, 지식의풍경)도 출간됐다.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읽을 수 있어

인디언의 신화와 전설을 엮은 책도 있어 눈길을 끈다. 《꿈꾸는 사람만이 지혜를 찾는다(전2권)》(크소코노쉬틀레틀, 강석란, 생각의나무)는 멕시코 아즈텍 인디언의 신화와 전설을 엮은 책이다. 비인간화된 서구의 물질문명과 백인우월주의에 빠진 서구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 책은 대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디언의 지혜와 참다운 삶을 동화 형식에 담았다.

“별들의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해 낼 정도로 고도의 과학문명을 이룩했던 마야와 아즈텍 인디언들이 어떻게 바퀴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하는 물음에 “태양과 달의 상징을 어떻게 수레바퀴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고 답하는 장면이 흥미롭다. 뿐만 아니라 바퀴가 없었다면 자동차와 탱크도 없었을 것이며, 백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어려워 인디언들이 그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는 문명과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인디언들의 비판도 읽을 수 있다.

《황당하고 재미있는 인디언 신화 1》(리처드 에르도스 외, 양순봉 외, 아프로디테)은 지은이들이 80여개의 인디언 부족에서 채록한 160여편의 신화를 모은 책이다. 인디언들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엿볼 수 있는데, 방대한 분량의 19세기 민속자료를 동원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디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인디언의 역사를 통해 바라본 미국의 진실

인디언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룬 진지한 책들도 있다. 대표적인 책이 《나를 운디드 니에 물어주오 — 미국 인디언 멸망사》(디 브라운, 최준석, 프레스하우스)다. 백인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인디언들의 처절한 저항을 기록한 이 책은 인디언의 비극적 운명을 다룬 책 가운데 고전으로 꼽힌다.

“백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약속을 했다. 그러나 지킨 것은 단 하나. 그들은 우리 땅을 먹는다고 했고 우리 땅을 먹었다”는 어느 인디언의 진술에서 처절하게 짓밟힌 인디언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아파치 인디언들을 이끌고 백인들을 상대로 싸웠던 제로니모 추장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우리는 영혼을 팔지 않았다 — 마지막 인디언 전사 제로니모》(포리스트 카터, 김옥수, 아름드리미디어)는 체

문명의 속도에 지친 현대인들의 작은 쉼터

인디언 관련서 펴낸 두레의 신홍범 대표

두레의 신홍범 대표(59)는 최근 인디언에 관한 두권의 책을 펴냈다. 《인디언의 복음》과 《작은 인디언의 숲》이 그것이다.

— 지금까지 두레는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주로 펴냈다. 인디언에 관한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현대 사회는 날이 갈수록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과 산업화는 급격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이는 곧 인간성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문명을 바라보며 위기의식을 느꼈다. 한번쯤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펴냈다.”

— 두종이 모두 시튼의 책인데…

“그는 유년 시절 인디언의 삶을 흉내내 숲 속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았던 적이 있다. 백인이면서도 인디언처럼 살고자 했던 그의 삶에서 무언가 남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인디언의 복음》은 그가 평생에 걸쳐 인디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편찬한 역작이다. 국내에 꼭 소개하고 싶었다.”

—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인디언의 삶을 관찰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생각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인디언은 자연을 자신의 한 부분이며 형제 자매로 여긴다. 그들에게 자연은 신성한 것이며, 그래서 인간의 생명처럼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 독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좋은 편이다. 책을 내고 얼마 되지 않아 재판을 찍었다. 소음과 공해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모양이다.”

— 인디언에 관한 책을 또 펴낼 계획인가?

“백인에 맞서 싸웠던 인디언 추장 ‘시팅 불’ (Sitting Bull)의 전기를 펴낼 계획이다. 백인의 무자비함을 고발하고 인디언의 순결한 문화가 어떻게 전승돼 왔는지를 살핀 책이다. 《창과 방패》라는 제목으로 올해 초 출간할 계획이다.”



로키 인디언의 혈통을 이어받은 미국작가의 장편소설이라는 점에서 이채롭다.

《미국사에 던지는 질문 — 인디언, 황야, 프론티어, 그리고 국가의 영혼》(프레더릭 E. 후시 외, 유시주, 영림카디널)은 역사는 왜 세계사의 소수자였던 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는지를 ‘인디언의 수난사’라는 거울을 통해 재검토하고 있다. ‘문명’ ‘프론티어’ ‘황야’ 등의 개념으로 상징되는 주류 미국인의 역사가 얼마나 허구적인 이미지를 생산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디언사에 대한 입문서 성격을 띠고 있다. — 최갑수 기자